‘완도 방문의 해’ 경제적 파급효과 200억 원 달해

10월 기준 667만 명 방문…생산 유발 효과 201억 원

완도군은 2025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 완도 365, 힐링 완도 36.5°C’를 슬로건 아래 다양한 관광 정책과 이벤트를 추진한 결과,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완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6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2만 명이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94만 명이 찾았으며, 12월까지 79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에서 지난 3월 처음 시행한 ‘완도 치유 페이’ 정책이 지역 경제 선순환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완도 치유 페이’는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판매장 등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5만 원 등 최대 20만 원을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 5천 건 신청, 4만 3천 명이 참여했으며, 2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

소비 분석 결과를 보면 11월 기준 관광객의 총소비액은 60억 원으로 집계됐고, 그중 직접 소비액 45억 원, 치유 페이 사용을 통한 소비가 15억 원이었다.

주요 소비처는 식당(35.7%), 특산품 구매(31.6%), 숙박업(29%), 카페(3.6%) 순으로 파악됐다.

‘완도 방문의 해’를 통한 전국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201억 원, 그중 완도군에서 발생한 효과는 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완도치유페이를 신청하기 위해 관광객으로 붐빈 현장 안내소.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방문의 해와 완도 치유 페이를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인지도와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해양치유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치유 관광을 활성화시켜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군민 참여로 ‘올해의 우수시책’ 결정

12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조사…내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 중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올해의 우수시책에 대한 군민 선호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부서에서 제출한 32건의 후보 시책을 대상으로 주민 편익 증진, 효과성, 창의성과 전문성, 지속적 행정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1차 내·외부 심사를 거쳐 10대 우수 시책(사업)을 선정하였다.

이후 군민이 직접 참여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군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은 시책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의 10대 우수시책은 ▲ 군민 밀착 양방향 소통행정 유난히 좋은날, 바로폰 운영 ▲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 개시 ▲ 농촌유학마을 조성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곡성형 워케이션 운영 ▲ 농가 인력난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 미래농업의 희망 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 축제장, 야시장, 읍내상권을 잇는 지역 상권 활력 프로젝트 ▲ 예방-대비-대응 체계로 산불제로(zero) ▲ 조직화된 블루베리, 조기재배, 장기출하 체계 정착 ▲ 가까운 곳에서 누리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권역별 건강증진센터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12월 10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는 군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11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우수시책 조사판에서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집계 후 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시책은 향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향후 선정된 우수 시책들은 더욱 확대 운영하여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무안군,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5개 부문 전방위 성과로 종합행정 우수 지자체 입증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26일 광주광역시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종합행정 분야에서 전방위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광남일보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경영대상은 7개 부문에서 각 지자체의 정책 성과를 심사해 수상기관을 선정하며, 5개 이상 부문에 출전한 지자체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곳에 종합대상을 수여한다.

무안군은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안전환경 등 5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으며, 단순히 일부 분야의 성과가 아닌, 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 등 군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정 운영의 내실과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김산 군수는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무안군의 공직자들과 군민들이 협력하여 함께 이룩해낸 성과”라고 말하며 “군의 우수한 종합행정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유감없이 역량을 발휘해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 지자체로써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200명에 경품 추첨 증정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25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보성과 함께하는 연말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보성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답례품을 주문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기부자는 기존의 답례품 수령과 더불어 당첨 시 경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벤트 기간 내 기부자 중 총 200명을 무작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 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추첨은 오는 12월 26일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된다.

이벤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보성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상생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을 맞아 많은 분이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영광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키로

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 원 이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무주택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안심전세포탈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방문하면 되고,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보험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강진군, 공공비축미곡 매입 내달까지 진행

오는 12월 11일까지 읍·면서…1만1,07톤 순조롭게 진행

강진군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11월 3일부터 시작해 12월까지 11개 읍면에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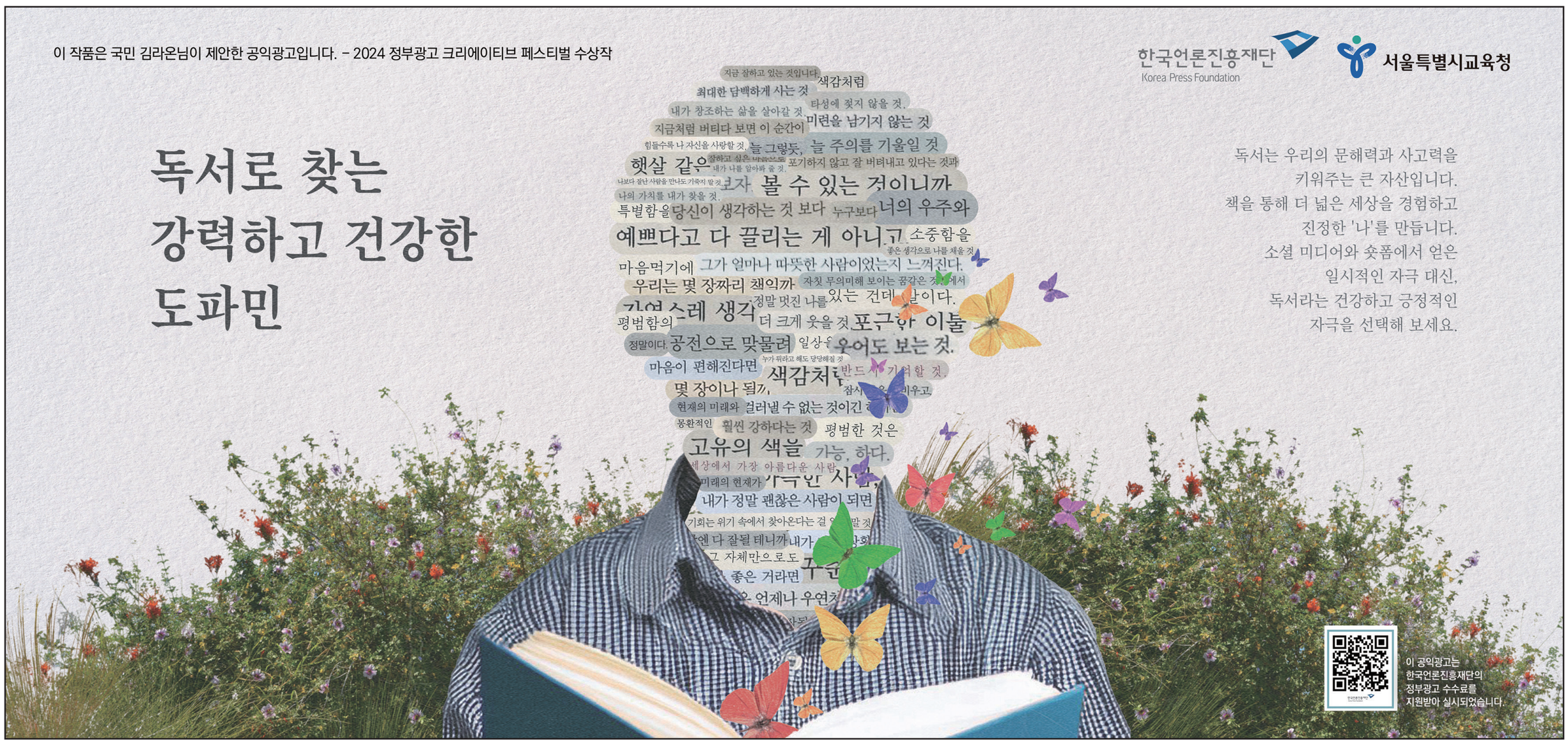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은 새청무 단일 품종으로, 포대벼 기준 40kg 단위로 ▲건조벼 16만6,879포(6,675톤) ▲산물벼 3만7,832포(1,513톤) ▲가루쌀 4만4,600포(1,784톤) ▲친환경 벼 2만6,620포(1,065톤) 총 27만5,931포(11,037톤)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은 수확기 장기간 지속된 강우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사실 확인 등으로 벼 수확 일정이 크게 지연돼, 강진군은 농가의 벼 수확 일정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10여일 늦은 12월 14일까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 24일 기준 강진군은 산물벼, 가루쌀, 친환경벼 매입은 마무리해 전체 계획량 대비 65% 매입실적을 달성했다. 현 매입이 진행중인 건조벼의 경우 특등 32%, 1등 62% 등급 판정을 받는 등 일정이 순조롭다.

산지 쌀값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25년산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전남도 수치상 3만톤이 과잉된 것으로 보이나 2024년산 이월재고가 없어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매입대금의 경우 매입 직후 포대당 4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확정 되는대로 12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수매 현장을 방문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움 속에서도 수확을 마친 농업인들께 감사드리며, 농가의 숨통을 틔우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